

# 인도-차이나와 19세기 프랑스 삽화 여행기\*

김 은 영

- I. 서론  
 II. 왜 프랑스 여행기인가?  
 III. 인도-차이나의 '발명'과 앙코르 와트의 '발견'  
 IV. 결론

## I. 서론

본고는 19세기에 발명된 지리 단위인 인도-차이나(Indo-Chine)<sup>1)</sup>의 상징으로 앙코르 와트가 자리매김하는 '프랑스중심주의적' 현상의 기원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 현상의 기원에는 식민주의 팽창의 시대인 19세기에 출판된 프랑스 삽화 여행기<sup>2)</sup>가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19세기 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B00018).

1) 본고는 19세기의 일반적인 표기 방식에 따라 '인도차이나'가 아니라 '인도-차이나'로 표기한다. 프랑스 식민지기록관(Archives d'Outre-Mer)이 보관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관련 기록물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문서상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인도-차이나'라는 표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미리 인쇄된 보고서 용지의 경우 1909년 5월 보고서 표지에서 처음으로 Indo-chine이 아닌 Indochine이 등장한다. 프랑스식민지기록관: FM/SG/Indo/AF/49/D01(9) Rapports administratifs mensuels, 1907-1911.

2) 여행기의 정의와 관련해서 리농-쉬퐁(Linon-Chipon)이 16-17세기 원거리 여행기 장르의 형성과 관련하여 만들어낸 신조어 'littéraire "viatique"(viatic literature, 여행기)'의 복합적인 개념을 19세기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Sophie Linon-Chipon, *Gallia Orientalis: Voyages aux Indes orientales, 1529-1722. Poétique et imaginaire d'un genre littéraire en formation*(Paris: Presses de l'Université de Paris-Sorbonne, 2003). 한편 여행기에 대한 유사한 넓은 정의는 다른 여행기 서지에서도

랑스에서 출판물, 특히 정기간행물을 통해 점점 더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여행기는 타자에 대한 인식을 대중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인도-차이나 여행기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인도-차이나가 어떤 계기로 인해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며, 현재에도 유효한 이미지를 획득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도 19세기에는 캄보디아의 영토가 아니었던 앙코르, 다시 말해 미래의 인도차이나연방(Union indochinoise)의 영토가 아니었던 앙코르 지역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인도-차이나의 상징물이 되었는지, 그 시발점을 바로 여행기에서 찾을 수 있다. III장에서 다루겠지만, 인도-차이나라는 지리용어는 프랑스에서 창작되어 일반화되었다.

한편 여행기라는 글쓰기에 대한 연구의 경우, 20세기 후반 이후 다양한 접근방법이 대거 등장하였다.<sup>3)</sup> 2006년 파리에서 출판된 『프랑스인의 이탈리아 여행기. 분석 서지』의 서문 저자가 밝히듯이 “최근 몇 년 간 여행 및 여행문학에 대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sup>4)</sup>하였다. 먼저, 20세기 후반기부터 여행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연구 및 여행 서지 출판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여행기라는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늘어가는 것 같다. 한편 여행기 서지들은 도서관 검색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점차 학문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sup>5)</sup> 또한, 과거에 출판된 여행기 및 여행 서지가 다시 출판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oine Brébion, “Préface”, *Bibliographie des voyages dans l'Indochine française du IX<sup>e</sup> au XIX<sup>e</sup> siècle*(Saigon: F. -H. Schneider, 1910), III-V; Harold. F. Smith, “Introduction”, *American Travellers Abroad. A Bibliography of Accounts published before 1900*(Lanham, Maryland and London: The Scarecrow Press, Inc., 1999, 2<sup>nd</sup> ed.[1<sup>st</sup> ed.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n. d.]), vii-ix.

3) 기행문이라는 장르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접근 방법 및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다음 저서의 제1부를 참고할 수 있다. Nivoelisoa Galibert, *Chronobibliographie analytique de la littérature de voyage imprimée en français sur l'Océan Indien (Madagascar-Réunion-Maurice) des origines à 1896*(Paris: Honoré Champion, 2000).

4) Vito Castinglione Minischetti, Giovanni Dotoli, Roger Musnik (dir.), “Introduction”, *Le voyage français en Italie des origines au XVIII<sup>e</sup> siècle. Bibliographie analytique*(Fasano: Schena Editore; Paris: Editions Lanore, 2006), p. 7.

5) 참고: Vito Castinglione Minischetti, Giovanni Dotoli, Roger Musnik (dir.), *Le voyage français en Italie des origines au XVIII<sup>e</sup> siècle. Bibliographie analytique*; Harold. F. Smith, *American Travellers Abroad. A Bibliography of Accounts published before 1900*; John Theakstone, *Victorian & Edwardian Women Travellers. A Bibliography of books published in English*(Mansfield Centre:

있다.<sup>6)</sup>

물론 21세기 사람들이 19세기 여행기를 독서하는 목적은 19세기 사람들의 목적과 다를 수밖에 없다. 19세기 사람들은 동시대인의 여행기를 읽음으로써 타자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습득한다고 믿었다. 1896년 파리에서 출판된 『에스파냐 및 포르투갈 여행 서지』의 저자에 따르면, 여행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인들은 여행기에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7)</sup> 1910년 출판된 『9-19세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여행 서지』의 저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서지를 작성했음을 밝힌다.<sup>8)</sup> 이렇듯 19세기-20세기 전반기에 여행기 서지 편집자들은 여행기를 통해 타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 여행기 서지를 작성하였다. 이렇듯 19세기 말이 되면 여행기는 방대한 정보 공급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굳힌 것 같다. 반면 21세기 사람들에게 이 여행기들은 정보 공급처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도 상당수의 19세기 여행기가 여전히 가치를 갖는 주된 이유는 여행기를 통해 여행기 저자 및 저자의 출신 사회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기는 타자에 대한 올바른 그르건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행기는 본질적으로 자전적인 글쓰기<sup>9)</sup>라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의 핵심 분석대상은 『세계여행』(*Le Tour du monde*, 1860-1914)이라

Martino Publishing, 2006).

6) 참고: Edward Godfrey Cox, *A Reference Guide to the Literature of Travel. Including Voyages, Geographical Descriptions, Adventures, Shipwrecks and Expeditions*(Mansfield Centre: Martino Publishing, 2003, facsimile ed.[1<sup>st</sup> e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ublication, 1935-1949]).

7) R. Foulché-Delbosc, "Préface", *Bibliographie des voyages en Espagne et en Portugal*(Paris: H. Welter, 1896), p. 1.

8) Antoine Brébion, "Préface", III.

9) 참고: Jacques Domenech, "Écriture de soi et récit de voyage: Chateaubriand et Rousseau à Venise", n° 4, mis en ligne le 15 mars 2004, consulté le 20 août 2009; URL: <http://revel.unice.fr/loxias/document.html?id=39> [온라인], 검색일 2009. 08. 20.

는 프랑스 정기간행물을 통해 출판된 두 편의 삽화 여행기이다. 이 두 편은 무오(Henri Mouhot, 1826-1861)의 「시암, 캄보디아, 라오스 및 인도-차이나 중부 지방 여행」<sup>10)</sup>과 가르니에(Francis Garnier, 1839-1873)의 인도-차이나 탐험여행(*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이다.<sup>11)</sup>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 때 발명된 공간인 인도-차이나가 앙코르라는 발견된 유적지와 뿔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 첫 계기가 바로 이 두 편의 삽화 여행기임을 본고는 보여주고자 한다. 삽화 여행기를 통해 이 조합이 유효될 수 있었던 프랑스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는 II장을 통해 프랑스에서 여행기 장르의 정착 및 대중화를 일별한 후, 19세기 프랑스인에게 외부 세계를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삽화 정기간행물 『세계여행』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삽화 정기간행물 『세계여행』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과 만난 상기 두 여행기를 검토함으로써 인도-차이나의 '발명'과 앙코르 와트의 '발견'이라는 조합의 등장을 설명할 것이다.

## II. 왜 프랑스 여행기인가?

### 1. 17-18세기 프랑스 여행기의 성장

프랑스에서 여행기는 근대에 이르러 하나의 글쓰기 장르로서 정착하였다.<sup>12)</sup> 특히 18세기 중반부터 언론인들이 활발히 여행기 비평을 작성한 사실을 통해 여행기라는 장르가 거둔 대성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근대 시대에는 항해술의 눈부신 발달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수의 유럽인들이 원거리

10) Henri Mouhot, "Voyage dans les royaumes de Siam, de Cambodge, de Laos et autres parties centrales de l'Indo-Chine", *Le Tour du monde*, t. VIII(1863/2), pp. 219-352.

11) Francis Garnier,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Le Tour du monde*, t. XXII(1870), pp. 1, 17, 33, 49, 65, 81, 305, 321, 337, 353, 369, 385, 401; t. XXIII(1872/1), pp. 353, 369, 385, 401; t. XXIV(1872/2), pp. 289, 305, 321; t. XXV(1873/1), pp. 273, 289, 305, 321, 337, 354. 26호로 나뉘어 연재된 여행기의 시작 페이지만 표기하였다.

12) 참고: Sophie Linon-Chipon, *Gallia Orientalis: Voyages aux Indes orientales, 1529-1722. Poétique et imaginaire d'un genre littéraire en formation*.

13) 참고: Yasmine Marcile, "Le lointain et l'ailleurs dans la presse périodique de la seconde moitié du XVIII<sup>e</sup> siècle", *Le Temps des Médias*, n° 8(2007/1), pp. 21-33.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여행기를 남길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조성되었다. 또한 항해술의 발달과 맞물린 인쇄혁명은 근대 유럽에서 새로운 글쓰기 문화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 유럽에서는 동시대인의 여행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 시기에 작성된 필사본 여행기도 활발히 출판되어 보급될 수 있었다. 여행기가 근대 유럽에서 글쓰기 장르로 정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행기의 양적 팽창뿐 아니라 여행기의 사회적 역할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근대 시대에 여행기는 차이를 이해하거나 거부하는 데 소용되는 전거의 집합으로서, 변화능력 및 동화능력의 기틀이었다.<sup>14)</sup> 반면 다른 시대에는 여행기의 이러한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sup>15)</sup> 여행기의 이러한 사회적 역할은 근대 유럽의 현실을 반영한다. 급격히 팽창 중인 근대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외부로 향한 가장 크고 가까운 창은 바로 출판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기 시작한 여행기였으며, 여행기를 통해 근대 유럽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내부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유럽을 벗어난 장기 여행이 매우 드물고 관련 자료가 필사본으로만 존재했던 근대 이전이나, 장거리 여행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며 출판된 여행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19세기<sup>16)</sup>와 비교하면 여행기의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근대 유럽의 특수성은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기했듯이 근대 시대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여 일반적으로 그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유럽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었으나, 여행을 하는 유럽인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여전히 소수였다. 그 중 근대 시대 여행기 작자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로 단연 선교사를 꼽을 수 있다. 근대 유럽 선교사들은 소수의 지식층에 속했을 뿐 아니라, 동시대인으로서의 드물게 유럽을 벗어난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유럽인에 비해서도 뛰어난 여행기를 쓸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소위 인도-차이나와 관련된 근대 유럽인의 여행기 중 선교사 여행기의 가치는 더욱더 두드러진다.<sup>17)</sup> 무

14) H. Eck et L.Martin, "Présentation", *Le Temps des Médias*, n° 8(2007/1), p. 6.

15) *Ibid.*, p. 6.

16) Jean-Georges Kirchheimer, *Voyageurs francophones en Amérique hispanique au cours du XIX<sup>e</sup> siècle. Essai de constitution d'un fichier bio-bibliographique* (thèse de doctorat du 3<sup>e</sup> cycle, université de Paris X, 1984), IV.

17) Donald F. Lach and Edwin J. Van Kley, *Asia in the Making of Europe*. Vol. III.

엇보다도 예수회 선교사들의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sup>18)</sup>는 중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유럽인들에게 지속적이며 대량으로 공급한 최초의 글쓰기로서, 프랑스 계몽사상가들 및 『백과전서』(*Encyclopédie*) 저자들에게 의미 있는 영감과 자료를 제공하였다.<sup>19)</sup> 여행보고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수회원의 서한을 묶은 이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 총서는 19세기까지도 다양한 여행기 모음집 및 지리서를 위한 참고자료로 쓰였다.<sup>20)</sup> 특히 현재의 베트남에 해당되는 지역을 여행한 후 여행기를 남긴 근대 유럽인 중 예수회 선교사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sup>21)</sup> 다수의 유럽 상인들도 17-18세기에 베트남에 대한 보고문 및 여행기를 출판하였으나 꾸준한 베트남 선교 사업을 벌인 예수회는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을 유럽에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22)</sup>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17세기에 출판된 가장 뛰어난 톤킹(Tonkin) 여행기로서 예수회 선교사 로드(Alexandre de Rhodes, 1591-1660)<sup>23)</sup>와 마리니(Giovanni Filippo de Marini,

*A Century of Advanc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1297; [Rédaction], "Indochine annamite: la connaissance du pays jusqu'en 1900",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 21(1921), pp. 199-201.

18)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34 vols(Paris, 1702-1776).

19) Françoise Aubin, "Bulletin des ouvrages", *Archives des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n° 48-2(1979), pp. 361-362.

20)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Jean-Baptiste du Hald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4 vols(Paris, 1735); Antoine François Prévost, *Histoire générale des voyages, ou nouvelle collection de toutes les relations de voyages par mer et par terre, qui on été publiées jusqu'à présent dans les différentes langues de toutes les nations connues*, 19 vols(Paris, 1746-1770); Conrad Malte-Brun, *Précis de la géographie universelle ou Description de toutes les parties du monde sur un plan nouveau d'après les grandes divisions naturelles du globe*, 8 vols(Paris, 1810-1829).

21) "Indochine annamite: la connaissance du pays jusqu'en 1900", pp. 199-205.

22) *Ibid.*, pp. 201-202.

23) Alexandre de Rhodes, *Relazione de' felici successi della santa fede predicata de' padri della Compagnia de Giesu nei regno di Tunchino*(Roma, 1650), Henri Albi (trad.), *Histoire du Royaume du Tunquin, et des grands progrès que la prédication de l'Evangile y a faits en la conversion des infidèles, depuis l'année 1627 iusques à l'année 1646*(Lyon, 1651).

1608-1682)<sup>24)</sup>의 글이 거론<sup>25)</sup>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인다. 게다가 1804년 파리에서 출판된 말트-브랭(Conrade Malte-Brun, 1775-1826)의 지리 관련 참고자료목록<sup>26)</sup>에서도 베트남과 관련된 참고자료 중에는 앞서 언급한 예수회의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 및 마리니의 저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865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미쇼인명사전』<sup>27)</sup>에 따르면 마리니의 보고문은 그 때까지 작성된 최고의 통킹 관련 저서로 평가 받고 있었다.

이렇듯 여행기는 근대 시대에 글쓰기 장르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는다. 게다가 유럽인의 장거리 여행 및 해외 체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여행기라는 글쓰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19세기에도 근대 여행기는 계속해서 유럽인들에게 타자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었다.

## 2. 19세기 프랑스 여행기의 대중화

19세기에 이르면 학문적인 차원뿐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타자 및 타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프랑스에서 다수의 지리학회 창립이나 『세계여행』과 같은 넓은 대중을 상대로 한 정기간행물의 급증이 그 예이다.<sup>28)</sup> 또한 여행, 특히 유럽을 벗어난 여행이 눈부시게 확산되는 19세기에 이르면,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며, 다양성도 강화된다. 예컨대 1808년 총 6권으로 파리에서 출판된 『여행 총서지』의 저자가 편집자

24) Giovanni Filippo de Marini, *Delle missioni de' padri della Compagnia di Gesu nelle provincia del Giappone, e particolarmente di quella di Tumkino*(Roma, 1663), L. P. L. C. C. (trad.), *Relation nouvelle et curieuse des royaumes de Tunquin et de Lao*(Paris, 1666).

25) Donald F. Lach and Edwin J. Van Kley, *Asia in the Making of Europe III: A Century of Advance*, p. 1276.

26) Conrade Malte-Brun, "Notice critique des ouvrages et cartes géographiques les plus remarquables, publiés en langues modernes", Edme Mentelle (revu.), *Géographie mathématique, physique et politique de toutes les parties du monde. Atlas*(Paris, 1804), p. 18.

27) Joseph F. Michaud et Louis Gabriel Michaud, *Biographie universelle(Michaud) ancienne et moderne*, v. 26(Paris, 1865), p. 676.

28) Claire Laux, "L'élan missionnaire en France et en Angleterr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XIX<sup>e</sup> siècle", Hélène Fréchet (coord.), *Religion et culture de 1800 à 1914. Allemagne - France - Italie - Royaume-Uni*(Paris: Editions du Temps, 2001), pp. 98, 105.

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미 “우리 시대에 여행기는 무한대로 급증”하였다.<sup>29)</sup> 따라서 『여행 총서지』의 저자는 나라별로, 그리고 각 나라 내에서는 연대기 순으로 여행기를 분류하여 여행기 목록을 작성할 필요<sup>30)</sup>를 역설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행기 서지는 원칙적으로 단행본만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단행본 여행기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기간행물을 통해 출판된 수많은 연작 여행기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다수 여행기 서지의 저자 혹은 편집자들은 하나같이 각 서지의 범위를 단행본으로 명확히 한정짓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프랑스인의 여행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역사가에게 수많은 단행본의 집합보다는 여행기를 전문적으로 보급한 특정한 정기간행물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19세기는 정기간행물의 세기였기 때문이다.<sup>31)</sup>

프랑스에서 정기간행물은 복고왕정기(1815-1830)에서 제3공화정기(1870-1940)로 이어지며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일간지 및 잡지가 급증하였고, 모든 사회 계층을 포괄하고 프랑스 전 지역을 관통하는 인쇄문화가 정착했으며, 이와 더불어 첫 번째 매체혁명이 발발하였다.<sup>32)</sup> 특히 7월왕정기(1830-1848) 동안 인쇄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였고, 마침내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책이 남긴 빈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중반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세기 1/3분기를 특징짓는 정치혁명이 마무리될 무렵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조성된 매체권력은 지적, 예술적, 문학적 교환 및 정체성 구축을 위한 문화적 도구였다.<sup>33)</sup> 이러한 매체의 역할은 식민화가 진전되던 19세기에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구성, 재구성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29) G. Boucher de la Richarderi, "Avis des éditeurs", *Bibliothèque universelle des voyages*, t. 1(Paris, 1808), i.

30) *Ibid.*, i.

31) 참고: Claude Bellanger, Jacques Godechot et Pierre Guiral (dir.), *Histoire générale de la presse française*, 5 vols(Paris: PUF, 1969-1976); Lawrence C. Jennings, "Review",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 43, n° 3(Sep. 1971), pp. 516-518; Joel Colton, "Review",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 79, n° 1(Feb. 1974), pp. 167-169.

32) A. Vaillant, "Avant-propos", *Romantisme*, v. 33, n° 121(2003), pp. 3-8.

33) Dominique Kalifa et Alain Vaillant, "Pour une histoire culturelle et littéraire de la presse française au XIX<sup>e</sup> siècle", *Le Temps des Médias*, n° 2(2004), p. 201.

혁혁한 공을 세운 정기간행물은 단연 여행기를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이다. 그 중 선교사 여행기를 널리 보급한 선교 후원 정기간행물의 선구적 역할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가톨릭 외방 선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sup>34)</sup> 예컨대 『전교회보』<sup>35)</sup>는 19세기에 활발히 활동한 가톨릭 선교 후원 단체인 전교회(Œuvre de la Propagation de la Foi)의 기관지로서,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한편 19세기에 인도-차이나 및 조선 등 아시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파리외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는 전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교회보』를 통해 소속 선교사들의 보고문 및 서한을 출판하였다.<sup>36)</sup>

이런 19세기의 배경에서, 무오 여행기의 서문을 쓴 『세계여행』의 편집자는 『전교회보』 및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Pallegoix)의 저작을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주요 자료로 언급한다.<sup>37)</sup> 또한 무오도 비슷하게 『전교회보』 및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Bouillevaux)의 저작을 인용한다.<sup>38)</sup> 1850년부터는 외국어 번역본을 포함하여 대략 150,000부를 발행<sup>39)</sup>할 정도로 대량 유통된 『전교회보』가 출판한 선교사 서한 및 보고문은 선교 호소문일 뿐 아니라 이국적 여행기이기도 하다. 예컨대, 조선과 관련하여 『전교회보』가 출판한 선교사들의 서한 대다수는 여행기라고 분류될 만한 글이다.<sup>40)</sup> 더구나 『전

34) 김은영,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예화와 조선, 그리고 프랑스 - 전형적인 텍스트에 대한 비전형적인 독서」, 『동아연구』, 제57호(2009. 8), pp. 96-97.

35)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1825-1933).

36) Kim Eun-Young, *Le discours des missionnaires français en Corée(1831-1886): correspondances et relations*(thèse de doctorat, Écoles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2008), pp. 96-116.

37) Henri Mouhot, “Voyage dans les royaumes de Siam, de Cambodge, de Laos et autres parties centrales de l’Indo-Chine”, p. 220.

38) *Ibid.*, p. 304.

39) Richard Drevet, “L’Œuvre de la Propagation de la Foi et la propagande missionnaire au XIX<sup>e</sup> siècle”, Claude Prudhomme (dir.), *Une appropriation du monde, mission et missions, XIX<sup>e</sup>-XX<sup>e</sup> siècles*(Paris: Publisud, 2004), p. 33.

40) 『전교회보』를 통해 출판된 재조선 프랑스 선교사들의 편지 목록은 다음의 연구에서 각각 정리, 번역되었다. Kim Eun-Young, “Tableau 0-7. Les écrits des missionnaires imprimés dans deux périodiques missionnaires”, *Le discours des missionnaires français en Corée(1831-1886): correspondances et relations*, pp. 102-111; 김은영, 「서양인이 읽은 조선 - 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9권(2008.12), pp. 228-235.

교회보』는 예수회의 『교훈적이고 호기심 어린 편지』의 진정한 계승자를 자처<sup>41)</sup>하면서 창간되었을 정도로, 근대 시대 유럽 교양인을 뒤흔든 이국적 타자에 대한 글쓰기의 부활을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선교사 여행기가 19세기에 유럽인들에게 타자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으로 기능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여행 전문 정기간행물의 등장으로 인해 선교사의 독점적 지위에는 변화가 초래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19세기 여행 전문 정기간행물로 『세계여행』을 꼽을 수 있다.<sup>42)</sup> 전문 기자의 취재여행이 일반화되는 1890년대 말부터 세계 소식은 현지 파견 기자에 의해 작성되어 대중에게 전달<sup>43)</sup>되지만, 19세기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뿐 아니라 박물학자, 공무원, 군인들이 작성한 여행기를 읽음으로써 프랑스 대중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며, 외부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기의 다양한 출판 형태<sup>44)</sup> 중 여행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 출판물은 단연 정기간행물이었다.<sup>45)</sup>

### 3. 19세기 프랑스 삽화 정기간행물 『세계여행』의 독보적 역할

『세계여행』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이국의 풍물 및 풍경을 유통시킴으로써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이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자극했던 중요한 매체였다. “여행과 여행자의 잡지(*Journal des voyages et voyageurs*)”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세계여행』은 파리에서 1860-1914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국내 및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행기를 출판하였다. 이 시기 대다수의 삽화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세계여

41) “Avertissement”,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t. 1(1827[1822]), v-vi.

42) 참고: Annie Lagarde-Fouquet et Christian Lagarde, *Édouard Charton(1807-1890) et le combat contre l’ignorance*(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6).

43) Marc Martin, “Le voyage du grand reporter, de la fin du XIX<sup>e</sup> siècle aux années 1930”, *Le Temps des Médias*, n° 8(2007/1), pp. 118-129.

44)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Édouard Charton (dir.), *Voyageurs anciens et modernes, ou Choix des relations de voyages les plus intéressantes et les plus instructives depuis le cinquième siècle avant Jésus-Christ jusqu’au dix-neuvième siècle*, 4 vols(Paris, 1867-1869).

45) Sylvain Venayre, “Le voyage, le journal, et les journalistes au XIX<sup>e</sup> siècle”, *Le Temps des Médias*, n° 8(2007/1), pp. 46-56.

행』도 주간지로서, 정기구독자에게 매주 배달하는 방식<sup>46)</sup>을 통해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한 해에 52차례에 걸쳐 일반적으로 16쪽씩 배달된 여행기들은 한 해에 두 번 분기별로 묶여서 매 분기마다 4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다시 인쇄되었다. 예컨대 가르니에의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은 총 26호로 나뉘어 배달되었으며, 이후 12-15권 등 총 네 권에 걸쳐 분기별로 다시 인쇄되었다. 1860년 2월 1일 첫 호가 발간된 『세계여행』은 두 시리즈로 구분된다. 제1시리즈는 1871년을 제외하고 1860-1894년에, 제2시리즈는 1895-1914년에 발간되었다.

『세계여행』은 출판사 아셰트(Hachette)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안겨 준 잡지였다.<sup>47)</sup> 특히 많은 수의 삽화는 더 많은 독자를 끌어 모으는 요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예컨대 가르니에의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의 제1차 배달분은 총 16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삽화는 총 10점이나 된다.<sup>48)</sup> 19세기 중후반기 프랑스에서 가장 일반적이었던 인쇄용 삽화는 사진이나 스케치를 밑그림으로 삼아 눈목판(*gravure sur bois de bout*; wood engraving) 기법을 이용하여 찍어낸 판화였다.<sup>49)</sup> 프랑스에서 사진이 책의 삽화로 처음 인쇄된 해는 1852년이며, 1880년대부터는 사진과 텍스트를 동시에 인쇄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sup>50)</sup> 따라서 사진을 직접 인쇄하여 삽입하는 기술을 도입한

46) Jean-Pierre Bacot, *La presse illustrée au XIX<sup>e</sup> siècle. Une histoire oubliée* (Limoges: Presses universitaires de Limoges, 2005), pp. 69-70.

47) Judith Lyon-Caën, “Annie Lagarde-Fouquet et Christian Lagarde, Édouard Charton(1807-1890) et le combat contre l’ignorance”, *Revue d’histoire du XIX<sup>e</sup> siècle*, n° 36(2008), [En ligne], mis en ligne le 04 juillet 2008. URL: <http://rh19.revues.org/index2852.html>. Consulté le 02 février 2010. [온라인], 검색일 2010.02.02. 『세계여행』의 연 구독료는 24프랑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Annie Lagarde-Fouquet, “Complément à l’ouvrage Édouard Charton et le combat contre l’ignorance”, [En ligne], mis en ligne en février 2009. URL: <http://sites.google.com/site/edouardcharton/Home>. Consulté le 2 novembre 2009. [온라인], 검색일 2009.11.02.

48) *Le Tour du monde*, t. XXII(1870/2), pp. 1-16.

49) Jean-François Tétu, “L’illustration de la presse au XIX<sup>e</sup> siècle”, *Semen*, n° 25(2008), [En ligne], mis en ligne le 26 février 2009. URL: <http://semen.revues.org/document8227.html>. Consulté le 27 novembre 2009. [온라인], 검색일 2009.11.27.

50) Pierre-Lin Renié, “De l’imprimerie photographique à la photographie. imprimée”, *Études photographiques*, n° 20(2007), [En ligne], mis en ligne le 01 octobre 2008. URL: <http://etudesphotographiques.revues.org/index925.html>. Consulté le 30 novembre 2009. [온라인], 검색일 2009.11.30.

1895년 전까지 『세계여행』은 눈목판 기법을 활용하여 삽화를 찍었다. 사실, 19세기 유럽에서 정기간행물의 발달은 판화 기법의 진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18세기 영국에서 발명된 눈목판 기술 덕분에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목판은 압착기의 압력을 견딜 정도로 견고해졌다.<sup>51)</sup> 그러나 이 기술은 긴 작업시간을 요하는데다 고가였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독자를 상대로 인쇄물을 찍어내야 했다. 이런 조건에서 눈목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정기간행물뿐이었다. 결국 19세기에 정기간행물은 눈목판 기법 덕분에 다량의 질 높은 삽화를 생산하였고, 삽화의 존재는 정기간행물의 시장성을 월등히 향상시켰으며, 덕분에 19세기에 이미 이미지는 정보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sup>52)</sup>

이렇듯 새로운 기법의 삽화로 무장한 『세계여행』을 위시한 여행 및 지리 정기간행물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식민지 및 이국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며 상상의 세계를 퍼뜨리는 주요 통로였다. 사실 『세계여행』은 식민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민사업 로비를 벌인 매체는 아니었지만,<sup>53)</sup> 식민지 모험을 대중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국에 대한 환상과 상상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sup>54)</sup> 지리, 여행기, 다양한 발견 등에 주력하면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자 한 『세계여행』은, 아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기 여러 다른 정기간행물과는 다르게 폭넓은 대중을 독자로 설정하였고, 의도적으로 수많은 삽화를 곁들임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프랑스 대중과 공유하였다. 선교 후원 정기간행물이나 식민주의 언론도 여행기로 분류될 수 있는 수많은 보고문을 출판하고 외부 세계에

51) “Bewick, Thomas”, “Wood engraving”, *The Oxford Dictionary of Art*(2004). *Encyclopedia.com*. URL: <http://www.encyclopedia.com>. 1 February, 2010. [온라인], 검색일 2010.02.01.

52) Jean-François Tétu, “L’illustration de la presse au XIX<sup>e</sup> siècle”, [En ligne]; Jean-Pierre Bacot, *La presse illustrée au XIX<sup>e</sup> siècle. Une histoire oubliée*, pp. 9-14.

53) Sandrine Lemaire, Pascal Blanchard et Nicolas Bancel, “Jalons d’une culture coloniale sous le Second Empire(1851-1870)”, Pascal Blanchard, Sandrine Lemaire et Nicoals Bancel (dir.), *Culture coloniale en Franc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nos jours*(Paris: CNRS Editions, 2008), p. 100.

54) Judith Lyon-Caën, “Annie Lagarde-Fouquet et Christian Lagarde, Édouard Charton (1807-1890) et le combat contre l’ignorance”, [온라인].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명확하고 특수한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여타 매체와 달리 『세계여행』은 대중성을 추구하였다. 『세계여행』의 창간자이자 1889년까지 편집장을 역임한 샤르통(Edouard Charton, 1807-1890)은 잡지의 창간 목적 및 독자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여행』의 목적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행을 알리는 것이다. 국내여행이건 해외여행이건 신뢰할 수 있으며 상상, 호기심, 혹은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여행을 알리는 것이다. 『세계여행』은 미발표 보고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탐사를 완결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미 출판된 보고문을 위한 자리도 남겨둘 것이다. 한편 『세계여행』은 특정 독자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sup>55)</sup>

한편 샤르통은 삽화의 쓰임새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텍스트를 중시하는 만큼 삽화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 혹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삽화는 장식에 불과하지만, 여행기에서 삽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움직이는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많은 것들이 묘사를 피해간다. 뛰어난 문체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명확하게 독자에게 다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행자가 펜을 잠시 내려놓고 붓을 들어 몇 번 붓질을 해주면, 독자의 눈으로 현실이 들어오며 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 전문 화가의 도움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행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로 퍼진 사진술은 물질적 증언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심지어 그림보다 더 나은 거울이다.<sup>56)</sup>

대중적 삽화 여행기에 대한 이러한 애착은 샤르통의 이력을 통해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행보이다. 샤르통은 1833년 『풍경을 곁들인 잡지』(*Magasin pittoresque*)(1833-1938)를 창간함으로써 프랑스에 최초로 삽화 정기간행물을 도입한 인물이다.<sup>57)</sup> 세계 최초의 삽화 정기간행물은 1832년 런던에서 등장하였는데,<sup>58)</sup> 제1세대 삽화 정기간행물은 정보 전달보다는 대중교육에 주력

55) Édouard Charton, [Avis aux lecteurs](1860), cité par Annie Lagarde-Fouquet, “Complément à l’ouvrage Édouard Charton et le combat contre l’ignorance”, [온라인].

56) *Ibid.*

57) Jean-Pierre Bacot, *La presse illustrée au XIX<sup>e</sup> siècle. Une histoire oubliée*, pp. 9-14.

58) *The Penny Magazine*.

했다.<sup>59)</sup> 제2세대 삽화 정기간행물도 런던에서 1842년에 탄생하였고,<sup>60)</sup> 이 시기부터 정기간행물은 시사와 이미지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sup>61)</sup> 샤르통은 1843년 프랑스에서 제2세대 삽화 정기간행물인 『삽화』(*L'illustration*)(1843-1853)의 창간에 참여하였으나, 『삽화』가 교육보다는 정보 전달을 강조하는데 반대하여 곧 이 잡지에서 손을 뗀다.<sup>62)</sup> 생시몽주의자이자 계몽사상의 계승자인 샤르통은 유용한 지식 보급이라는 프랑스식 모델을 고수하는데,<sup>63)</sup>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세계여행』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여행 전문 정기간행물이라는 하지만, 『세계여행』은 시사 및 정보의 전달보다는 유용한 지식의 대중적 보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 III. 인도-차이나의 ‘발명’과 앙코르 와트의 ‘발견’

#### 1. 인도-차이나의 ‘발명’

삽화 정기간행물인 『세계여행』의 사료적 가치는 인도-차이나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여행기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1866년에 병인양요가 발발했을 당시 프랑스 해군 장교로서 강화도에 잠시 체류한 앙리 쥐베르(Henri Zuber, 1844-1909)는 귀국 후 『세계여행』을 통해 「조선원정」<sup>64)</sup>이라는 제목의 여행기를 출판하였는데, 이 여행기에 삽입된 목판화는 조선을 실제로 본 서양인에 의해 출판된 최초의 조선 ‘진경화’로 추정된다.<sup>65)</sup> 이는 『세계여행』 삽화의 희소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조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프랑스와 훨씬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도-차이나의 경우, 『세계여행』의 삽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밖에

59) Jean-François Tétu, “L’illustration de la presse au XIX<sup>e</sup> siècle”, [온라인].

60) *The Illustrated London News*.

61) Jean-François Tétu, “L’illustration de la presse au XIX<sup>e</sup> siècle”, [온라인].

62) Marie-Laure Aurenche, *Édouard Charton et l’invention du “Magasin pittoresque”* (Paris: Honoré Champion, 2002), pp. 331-332; Jean-François Tétu, “L’illustration de la presse au XIX<sup>e</sup> siècle”, [온라인].

63) Jean-François Tétu, “L’illustration de la presse au XIX<sup>e</sup> siècle”, [온라인]; 참고: Édouard Charton, *Mémoire d’un prédicateur saint-simonien*(Paris, 1831).

64) Henri Zuber, “Une expédition en Corée”, *Le Tour du monde*, t. XXV(1873/1), pp. 401-416.

65) 김은영,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예화와 조선, 그리고 프랑스」, pp. 212-213.

없다. 더구나 인도-차이나라는 지리용어 자체가 프랑스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 인도-차이나라는 규정이 진행 중인 19세기에 관련 지역을 직접 방문한 프랑스인의 여행기는 흥미로운 자료가 된다. 인도-차이나를 지리 용어로 발명한 인물로 인정받는 말트-브랭은<sup>66)</sup> 1804년 출판한 『수학적, 물리적, 정치적 세계지리』<sup>67)</sup>의 제12권에서 처음으로 인도-차이나라는 개념<sup>68)</sup>을 선보이며, 1813년 출판된 『세계지리개요』<sup>69)</sup>의 제4권에서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의하고자 시도한다.<sup>70)</sup> 1810년에 제1권이 출판된 『세계지리개요』 초판은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저서를 통해 말트-브랭은 현대 지리학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71)</sup> 『세계지리개요』에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해설은 제4권의 제72장과 제73장에 걸쳐 등장한다. 이 중 제72장의 도입 부분에서는 “동인도 혹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전체적 묘사(Description générale de l’Inde orientale ou de l’Indo-Chine)”라는 제목 하에 인도-차이나가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말트-브랭은 인도-차이나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아시아 전체 중에서 이제 남은 지역은 버마 제국 및 톤킹, 코친차이나, 라오스,

66) Louis Malleret, “L’avenir des sciences humaines à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Comptes-rendu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n° 96-1(1952), p. 139; Daniel Hémerly, “Inconstante Indochine... L’invention et les dérives d’une catégorie géographique”,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n° 87(2000), pp. 137-158.

67) Conrade Malte-Brun et Edme-Mentelle, *Géographie mathématique, physique et politique de toutes les parties du monde*, 12 vols(Paris, 1804).

68) Conrade Malte-Brun et Edme-Mentelle, “Pays indo-chinois ou royaumes de Tonquin, de Cochinchine, de Laos, etc.”, *Géographie mathématique, physique et politique de toutes les parties du monde*, v. XII, pp. 1-22. 참고: Pierre Brocheux et Daniel Hémerly, *Indochine. La colonisation ambiguë 1858-1954*(Paris: Edition de la Découverte, 2002(1995)), p. 12.

69) Conrade Malte-Brun, *Précis de la géographie universelle ou Description de toutes les parties du monde sur un plan nouveau d’après les grandes divisions naturelles du globe*, 8 vols(Paris, 1810-1829).

70) Pierre Brocheux et Daniel Hémerly, *Indochine. La colonisation ambiguë 1858-1954*, p. 12.

71) Jean-Jacques-Nicolas Huot, “Notice sur la vie et les écrits de Malte-Brun” à la nouvelle édition du *Précis de la géographie*, vol. 1(Paris, 1845-1847, 5<sup>e</sup> éd.), pp. 1-9.

캄보디아, 삼 왕국, 그리고 말라카의 여러 독립 국가들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 지역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는 갠지스강 저편의 반도(presqu’île au-delà du Gange)라 부르기도 하는데, 엄격히 말해 이 지방은 하나의 반도가 아니다. 여러 지리학자들은 이 지방을 외(外)인도(Inde extérieure)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 나라들이 중국제국에 때때로 복속되기도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리고 용모, 키, 피부색 및 풍속, 종교, 언어의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중국인들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몇 년 전부터 명쾌하며 축약적이고 듣기 좋은 새로운 이름으로 이 지방을 부르게 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인도-차이나(Indo-Chine)이다.<sup>72)</sup>

이렇듯 인도와 중국은 이미 유럽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명칭이 없는’ 이웃 지역의 작명을 위한 재료가 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과 고대 로마인들의 저작에도 등장하는 인도는 16세기 이후로 남아시아의 세 지역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73)</sup> 한편 포르투갈인들을 중심으로 항해 및 교류가 발달하면서 16세기 이후로 중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실증적 지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자<sup>74)</sup> 말트-브랭과 같은 지리학자는 중국과 “외인도”의 유사성에 주목하게 된다.<sup>75)</sup> 이에 따라 “갠지스강 저편의 반도” 혹은 “외인도”라고 불리던 지역은, 19세기 초반이 되자 학문적으로 더 큰 설득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도-차이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 비록 이 신조어가 처음부터 프랑스 학계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나,<sup>76)</sup> 『세계여행』에 실린 22편의 인도-차이나 관련 여행기를 검토한 결과, 19세기 중반에는 이 용어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초기에는 현재의 동남아 대륙부를 가리키던 인도-차이나라는 지리·문화적 용어는 프랑스의 식민화, 특히 인도차이나연방 창설과 더불어 그 대상을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좁히면서 식민주의적 행정용어로 진화한다.

72) Conrade Malte-Brun, *Précis de la géographie*, vol. 4(1813), p. 169.

73) Conrade Malte-Brun, *Précis de la géographie*, vol. 1(1845-1847, 5<sup>e</sup> éd.), p. 229.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세계지리개요』 초판의 열람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에 모든 인용문을 초판에서 가져오지 못하였다. 아래 인용문은 1845-1847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제 5판을 출처로 삼고 있다.

74) *Ibid.*, pp. 148, 257-258.

75) *Ibid.*, p. 147.

76) Louis Malleret, “L’avenir des sciences humaines à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 139.

따라서 인도-차이나라는 용어가 프랑스에서 정착하면서 식민주의적 함의를 구체화하던 19세기에 『세계여행』을 통해 출판된 삽화 여행기는 이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몇몇 여행기가 『세계여행』 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동일한 삽화와 함께 단행본으로 발간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앙코르 와트의 이미지를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한 무오의 여행기는 『세계여행』의 삽화를 그대로 활용하여 1864년 런던에서 영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세계여행』 편집자의 각주에 따르면, “런던 소재 출판사(John Murray)가 연말에 내놓을 영어본은 8절판으로 인쇄되며, 본 연재의 삽화를 그대로 실을 예정이다.”<sup>77)</sup> 또한 가르니에의 여행기는 『세계여행』 연재가 끝나갈 무렵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sup>78)</sup> 게다가 이 여행기들은 이후 반복적으로 인용되거나 재판되었다.<sup>79)</sup> 이렇듯 인도-차이나와 관련해서 보자면, 『세계여행』에 삽입된 목판화 및 사진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인용되는 사료로 기능하고 있다.<sup>80)</sup>

1860-1914년에 『세계여행』을 통해 출판된 인도-차이나 관련 여행기는 22편이며, 이 중 1900년 이전에 출판된 여행기는 모두 14편이다. 이 모든 여행기의 분량은 매우 다양하다. 인도-차이나와 관련된 가장 긴 여행기는 1870-1873년에 연재된 가르니에의 여행기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으로, 두 열(colonnes) 412쪽에 달한다. 두 번째로 긴 여행기는 1889-1891년에 연재된 군의관 오카르(Edouard Hocquard, 1853-1911)의 여행기 「통킹에서 보낸 30

77) Henri Mouhot, “Voyage dans les royaumes de Siam, de Cambodge, de Laos et autres parties centrales de l’Indo-Chine”, p. 221.

78)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Paris: Hachette, 1873).

79) 무오의 여행기의 경우, 『세계여행』의 삽화를 재활용한 1864년 런던 출간 영문판은 2001년 보스턴에서 영인본으로 재간행되었다. *Travels in the Central Parts of Indo-China(Siam), Cambodia, and Laos, during the Years 1858, 1859, and 1860* (London: John Murray, 1864; Boston: Adamant Media, 2001). 한편 가르니에 여행기의 현대 프랑스어판 및 영문판으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Voyage d’exploration de l’Indo-Chine*(Genève: Olizane, 2009); *A Pictorial Journey on the Old Mekong: Cambodia, Laos and Yunnan*(Bangkok: White Lotus, 1998).

80)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Patrick Moreau, <Perdu dans Hanoi>(film documentaire, France, 2010); Chantal Edel (dir.), *Sur le Mékong et les pistes d’Indochine* (Grenoble: Edition Glénat, 2004); Milton Osborne, *Southeast Asia: An Introductory History*(Sydney: Allen and Unwin, 1979); *River Road to China: The Mekong River Expedition, 1866-1873*(London and New York: Riveright, 1975).

개월)<sup>81)</sup>로, 두 열 305쪽의 분량이다. 영국의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와 런던동물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의 후원을 받아 인도-차이나로 연구 여행을 떠난 프랑스인 박물학자 무오의 여행기 「시암, 캄보디아, 라오스 및 인도-차이나 중부 지방 여행」<sup>82)</sup>은 두 열 134쪽의 분량이다. 가장 짧은 여행기는 1898년에 출판된 토목공사 공무원 아고스티니(J. Agostini)의 여행기 프놈펜 (캄보디아 여행),<sup>83)</sup>으로 두 열 12쪽에 불과하다. 한편 19세기에 출판된 14편의 여행기 중 한 편은 영국 군인이 작성한 여행기의 프랑스어 번역본이며, 나머지 13편은 모두 프랑스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12명의 프랑스인 저자 중 군의관을 포함하여 해군에 소속된 사람은 7명이나 된다. 그 외 2명은 박물학자, 1명은 토목공사 공무원이고, 1명의 국회의원, 또 다른 1명은 사업가 겸 탐험가이다.

## 2. 앙코르 와트의 ‘발견’

여러 여행자 중 21세기 프랑스에서도 유효한 ‘앙코르 와트로 상징되는 인도-차이나’ 조합을 구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여행자는 무오와 가르니에라고 할 수 있다. 1863년에 출판된 무오의 여행기는 처음으로 삽화를 곁들여 앙코르를 소개함으로써, 그 때까지 나왔던 다른 앙코르 탐방기<sup>84)</sup>와는 차별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13세기에는 중국인 주달관(周達觀)이,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인들이 앙코르를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지만, 대중에게 앙코르를 알린 사람은 무오이며, 무오의 삽화 여행기를 통해 프랑스 독자들

81) Édouard Hocquard, “Trente mois au Tonkin”, *Le Tour du monde*, t. LVII-LXI(1889/1-1891/1), pp. 1-64, 65-112, 81-160, 257-320, 321-368.

82) Henri Mouhot, “Voyage dans les royaumes de Siam, de Cambodge, de Laos et autres parties centrales de l’Indo-Chine”, pp. 219-352.

83) J. Agostini, “Phnom-Penh(Voyage au Cambodge)”, *Le Tour du monde*, nouv. ser. A-4(1898), pp. 289-300.

84) 무오는 304쪽에서 부이보(Bouillevaux) 선교사의 탐방기를 직접 인용한다. 한편 크메르제국을 방문한 원나라 사신 주달관의 『진랍풍토기』(眞臘風土記)는 1819년에 이미 중국학자 아벨-레뮈사(Abel-Rémusat)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Charles-Emile Bouillevaux, *Voyage dans l’Indo-Chine, 1848-1856*(Paris, 1858); Jean-Pierre Abel-Rémusat, *Description du royaume de Cambodge par un voyageur chinois qui a visité cette contrée à la fin du XIII siècle, précédée d’une notice chronologique sur ce même pays, extraite des annales de la Chine*(Paris, 1819).

은 이 이국적 세계를 향한 상상을 나래를 펴게 되었다.<sup>85)</sup> 1870년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가르니에의 여행기에서 가르니에가 확인하듯이 프랑스인들은 무오의 여행기와 삽화를 통해 앙코르 와트를 발견하였다.<sup>86)</sup> 총 134쪽에 달하는 여행기 중 앙코르 와트의 묘사에 할애된 분량은 10쪽 남짓하지만, 이 안에는 앙코르 와트와 관련된 삽화가 7개 포함되어 있다.<sup>87)</sup> 무엇보다도 무오의 여행기는 『세계여행』을 통해 출판된, 프랑스인이 작성한 첫 번째 인도-차이나 여행기이다. 따라서 삽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 앙코르 와트에 대한 무오의 경외감을 바탕으로 프랑스인들은 이 새로운 인도-차이나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앙코르에 도착하면 여행자는 경이로움으로 흥분되고 사막 한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보다 더 생생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법에 걸린 듯 여행자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깊은 암흑에서 빛으로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느낄 것이다. … 아! 내가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이나 라마르틴(Lamartine)의 펜을 가졌다면,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의 붓을 가졌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민족의 유적에 불과한 이 탁월한 폐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지 예술가들에게 알릴 수 있을 텐데.<sup>88)</sup>

이 사원을 본 순간 정신이 웅크리는 것 같고, 상상력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 같다. 바라보고, 탄복하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이내 침묵한다. 지구상에는 아마도 그 대응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솔로몬의 성전만이 그 경쟁작이 될 만한 작품을 칭송하기 위한 어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sup>89)</sup>

앙코르와 관련하여 보자면, 무오의 여행기를 계승하는 가르니에의 여행기는 1870년 『세계여행』을 통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 여행기에서 가르니에는 무

85) Chantal Edel (dir.), *Sur le Mékong et les pistes d'Indochine*, p. 15.

86) Francis Garnier,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Le Tour du monde*, t. XXII(1870/2), p. 22.

87) 특히 다음의 삽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açade orientale du grand temps d’Ongkor”; “Chausée et entrée principale d’Ongkor Vat”; “Façade septentrionale d’Ongkor Vat”; “Portique centrale d’Ongkor Vat”, *Le Tour du monde*, t. VIII(1863/2), pp. 296, 297, 300, 301.

88) Henri Mouhot, “Voyage dans les royaumes de Siam, de Cambodge, de Laos et autres parties centrales de l’Indo-Chine”, p. 298.

89) *Ibid.*, p. 299.

오의 여행기를 여러 차례 언급한다. 가르니에가 아래의 인용문에서 증언하다시피, 무오의 글과 그림을 통해 처음으로 프랑스 독자들은 앙코르 와트를 발견하였다.

독자들은 바로 이 지면을 통해 출판된 무오의 여행기와 그림 덕분에 이 폐허의 일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sup>90)</sup>

이 폐허를 새롭게 재발견한 사람은 고(故) 무오다. 이 폐허의 모습은 1838년경에 출판된 가장 완성도 높은 삽화 출판물인 『삽화세계』(*Univers Illustré*)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을뿐더러 『삽화세계』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무오는 현 세기에 앙코르를 방문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지만, 앙코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묘사와 흥미로운 그림을 전해 준 최초의 인물이다.<sup>91)</sup>

가르니에의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은 『세계여행』을 통해 출판된, 프랑스인이 작성한 두 번째 인도-차이나 여행기로서, 1870-1873년에 걸쳐 대략 4년 동안 총 26개의 호로 나뉘어 정기구독자에게 배달되었다. 또한 가르니에의 이 보고서는 프랑스 해군 당국의 후원을 받아 연재가 끝나기 전에 『세계여행』의 출판사인 아셰트 출판사를 통해 총 1,100쪽에 달하는 공식 출판물로 재탄생하였다.<sup>92)</sup> 프랑스-프로이센전쟁(1870년 6월-1871년 1월)으로 인해 1871년에는 『세계여행』이 발행되지 않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르니에 여행기는 세 차례에 걸쳐 연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의 마지막 호에 부가된 편집자의 결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르니에 여행기는 연재 중에 이미 프랑스 독자로부터 주목할 만한 호응을 받았다.<sup>93)</sup>

특히 상당한 분량을 자랑하는 가르니에의 이 유명한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은 앙코르 와트 방문으로 시작된다. 1870년의 처음 두 배달분 32쪽은 모두 앙코르 와트에 할애되었을 뿐 아니라, 첫 호 첫 면은 앙코르 와트 전면 모습으로 장식되었다.<sup>94)</sup> 더구나 32쪽 안에 포함된 앙코르 와트의 다양한 이

90) Francis Garnier,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Le Tour du monde*, t. XXII(1870/2), p. 6.

91) *Ibid.*, p. 22.

92) 참고: Rédaction, “Conclusion au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de Francis Garnier”, *Le Tour du monde*, t. XXV(1873/1), p. 366.

93) Rédaction, “Conclusion au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de Francis Garnier”, *Le Tour du monde*, t. XXV(1873/1), pp. 366-368.

94) Francis Garnier,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Le Tour du monde*, t. XXII(1870/2), p. 1.

미지만 해도 모두 19개에 달한다.<sup>95)</sup> 또한 가르니에 여행기를 동반한 앙코르 와트 삽화는 무오의 삽화보다 질적으로도 월등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가르니에 여행기의 삽화 중 대다수는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앙코르 와트와 관련된 무오의 삽화 중에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 없었더라, 무오의 크로키 및 설명을 기초로 전문 화가가 그림을 그린 후 이를 이용하여 판화를 제작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sup>96)</sup> 요컨대 인도-차이나 탐험여행의 전체 분량과 비교해 볼 때 앙코르 와트와 관련된 부분이 결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가르니에 여행기는 이보다 7년 앞서 출판된 무오의 여행기를 계승하여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인 앙코르 와트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 긴 도로 위에서 위엄 있게 걸음을 떼는 코끼리를 타고 둘러본, 환상적인 용으로 장식된 이 웅장한 입구, 양 편으로 퍼진 작은 호수와 같은 두 개의 대규모 수조, 사원의 거대한 외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비율을 초월하여 고안된 웅대한 작품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깨닫는다. 무오의 글과는 달리, 견줄 만한 대상으로 솔로몬의 성전만 꼽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바로 이곳에 무명의 미켈란젤로의 걸작이 있다.<sup>97)</sup>

요컨대 프랑스에서 상상의 인도-차이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앙코르 와트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기원에는 바로 『세계여행』이라는 삽화 정기간행물을 거쳐 유통된, 무오와 가르니에의 여행기 및 삽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앙코르 지역은 17세기 말 이후 시암의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으며, 1907년 3월 23일 프랑스-시암 조약에 따라 가까스로 캄보디아의 영토로 '회복'<sup>98)</sup>된 곳이다. 따라서 무오와 가르니에의 여행기를 통해 인도-차이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앙코르 지역은 이들의 방문 당시에는 미래의 프랑스 보호국인 캄보디아의 영토가 아니었다. 또한 시대착오를 무릅쓰고 표현을 하자면, 19세기에 앙코르 지역은, 인도차이나연방의 설립(1887년)을 통해 형성될 인도차이나라는

95) *Ibid.*, pp. 1-32.

96) 『세계여행』은 각 삽화의 제목 옆에 삽화의 출처를 표시한다.

97) Francis Garnier, "Voyage d'exploration en Indo-Chine", *Le Tour du monde*, t. XXII(1870/2), p. 10.

98) "Chronologie: points de repère", Hugues Tertrais (dir.), *Angkor VIII<sup>e</sup>-XXI<sup>e</sup> siècle. Mémoire et identité khmères*(Paris: Editions Autrement, 2008), p. 221; Winichakul Thongchai,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Chiang Mai: Silksworm Books, 2004[1994]), pp. 150-151.

행정 단위에 속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와 가르니에의 여행기를 통해 발생한 앙코르에 대한 환상 및 앙코르의 상징성은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삽화 여행기가 선보인 앙코르 와트의 인도-차이나라는 조합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식민주의 팽창으로 인해 이 조합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프랑스의 해군부 및 식민지부의 내부에서 유통된 기능적인 인도-차이나 관련 보고서 혹은 여행기의 양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sup>99)</sup> 그러나 이 내부 보고서 중 당시에 일반인에게까지 유포된 것은 당국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손질된 문건뿐이었다. 당연히 『세계여행』 등을 통해 출판된 군인 및 공인의 여행기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세상에 나온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인도-차이나 관련 여행기 저자들은 해군 소속이었다. 결국 일반인에게 유통된 대다수의 인도-차이나 여행기는 제2제정(1851-1870)을 거쳐 제3공화정(1870-1940)의 전반기까지 프랑스 정부의 식민화 계획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런 여행기에서는 인도-차이나가 프랑스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야만 했다. 특히 '식민정책(politique coloniale)'이 정의되고 확인되었던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기 동안에는 '식민문화(culture coloniale)'가 프랑스에서 출현하였고, 삽화 정기간행물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sup>100)</sup> 소위 '해군 제국주의(impérialisme naval)' 시대인 19세기 중반기에, 프랑스의 식민지는 해군력에 의해서 획득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군을 위해서 마련되었다.<sup>101)</sup> 특히 멀고 먼 인도-차이나 원정에 투입될 수 있는 군사력은 해군뿐이었고 본국과의 연락도 오로지 선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sup>102)</sup> 이런 맥락에서 앙코르 와트로 대표되는 인도-차이나라는 그림의 확고

99) 프랑스식민지기록관이 보관하고 기록물 중 인도-차이나와 관련하여 해군부 및 식민지부가 수령, 혹은 수집한 인도-차이나 파견 군인, 공무원 등의 보고문과 서한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식민지기록관의 다음 기록물을 예로 들 수 있다. AOM: FM/SG/Indo/AF/1/A00(1)-(21) Affaires politiques-Généralités. 1856-1884.

100) Sandrine Lemaire, Pascal Blanchard et Nicolas Bancel, "Jalons d'une culture coloniale sous le Second Empire(1851-1870)", pp. 91-100.

101) Pierre Brocheux et Daniel Hémerly, *Indochine. La colonisation ambiguë 1858-1954*, p. 28.

102) Eugène-Jean Duval (dir.), *Aux sources officielles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한 정착은 해군 주도의 식민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앙코르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은 ‘문명화 소명’과 맥을 함께 하면서 크메르의 유산을 크메르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역사적 정당성’까지 획득하고 1907년 시암으로부터 앙코르 지역을 빼앗아 오도록, 혹은 되찾아 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sup>103)</sup>

#### IV. 결 론

앙코르 와트와 인도-차이나의 결합은 19세기 중반기에 무오와 가르니에의 삽화 여행기를 해 본격화되었다. 1887년 인도차이나연방 수립으로 제도적인 식민화가 완성되고, 인도-차이나라는 지리적 혹은 문화적 용어가 안정적인 고유명사인 행정용어 인도차이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이 조합은 큰 변동을 겪지 않는다. 특히 앙코르 와트를 통해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인도차이나를 상상하는 프랑스인의 관행은 20세기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예로, 1931년 파리에서 개최된 식민지박람회에서 앙코르 와트가 인도차이나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재현된 사실<sup>104)</sup>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공산당의 반제국주의연맹(Ligue anti-impérialiste)이 식민지박람회에 맞서 같은 해에 개최한 〈식민지에 대한 진실〉(La Vérité sur les colonies) 전시회의 포스터<sup>105)</sup>를 보아도, 전경에는 흑인, 아랍인, 베트남인,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세 인물이 등장하지만, 후경에는 앙코르 와트만 뚜렷하게 있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게다가 인도차이나라는 용어가 내포한 제국주의적 의미를 경계하는<sup>106)</sup>

1870-1940(Paris: L'Harmattan, 2008), p. 81.

103) Alain Forest, “Pour comprendre l’histoire contemporaine du Cambodge”, Alain Forest (dir.), *Cambodge contemporain*(Paris: les Indes savantes; Bangkok: IRASEC, 2008), p. 18.

104) Maureen Murphy, *Un palais pour une cité. Du musée des colonies à la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Paris: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2007), p. 15.

105) *Ibid.*, p. 20.

106)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의 화보집은 박물관 연대기 부분에서 인도차이나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해당 시대의 용어임을 지적하고 넘어간다. Jean-François Jarrige (préf.), *Album.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Paris: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2001), p. 6.

오늘날 탈식민화 시대에도 인도차이나는 여전히 앙코르 와트와 결합되어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일례로 2001년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이 출판한 『인도차이나 사진. 19세기 통킹, 안남, 코친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sup>107)</sup>라는 제목의 사진집 표지를 장식하는 이미지는 뤼시앙 푸르느르(Lucien Fournereau, 크메르예술 연구자)가 1888년 앙코르 와트에서 찍은 사진으로서, 이 사진은 장식 기둥을 사이에 두고 데바타(devata)와 캄보디아 소년이 각각 좌우에 위치한 장면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비슷한 예로 역사가가 아닌 언론인이 집필한 『인도차이나의 역사. 제국의 진주, 1624-1954』<sup>108)</sup>를 들 수 있다. 이 단행본의 표지는 시그마(Sigma)사 출처 1920년 앙코르 와트 사진이다.

소위 인도-차이나라는 공간을 정의하고자 한 19세기 프랑스인들에게 이 인도-차이나는 탐험 및 정복의 대상이자, “유용한 지식의 대중적 보급”을 추구하는 삽화 정기간행물 『세계여행』이 찍어 낸 텍스트와 이미지에 의해서 쉽게 규정될 수 있는 세계였다. 요컨대 제국주의 팽창의 시기인 19세기에 탐험 및 정복의 대상인 인도-차이나라는 공간이 앙코르 와트라는 크메르 유적으로 미화되었던 기원에는 삽화 정기간행물 『세계여행』이 출판한 무오와 가르니에의 여행기가 있다. 19세기에 앙코르 지역은 캄보디아의 영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앙코르의 ‘발견’을 통해 ‘발명’된 인도-차이나를 효과적으로 자기화(appropriation)해 나간 프랑스의 상황은, 그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담론이 발휘했던 파급력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투고일자: 2011. 1. 10, 심사일자: 2011. 1. 28, 게재확정일자: 2011. 2. 5〉

주제어 : 인도차이나(Indochina), 앙코르(Angkor), 여행기(Travel Account), 정기간행물(Periodical Publication), 식민주의(Colonialism)

107) Philippe Franchini et Jérôme Ghesquière (coordi.), *Des photographies en Indochine. Tonkin, Annam, Cochinchine, Cambodge et Laos au XIX<sup>e</sup> siècle* (Paris: Marval, 2001).

108) Philippe Hédouy, *Histoire de l’Indochine. La perle de l’empire 1624-1954*(Paris: Albin Michel, 1998).

## 〈Résumé〉

**L'Indo-Chine et le récit de voyage illustré français au XIX<sup>e</sup> siècle**

Eun-Young KIM

Le présent article a pour but d'explorer certains aspects relatifs à la perception française de l'Indo-Chine au XIX<sup>e</sup> siècle en examinant des relations de voyage. Ce travail s'intéresse à la façon dont l'image populaire de l'Indo-Chine a été formée au XIX<sup>e</sup> siècle en France. L'article se compose de deux parties. La première partie retrace l'émergence de la relation de voyage comme un genre d'écrit en France moderne, rappelle l'importance historique du récit de voyage en Indo-Chine, examine la vulgarisation de l'écrit de voyage au XIX<sup>e</sup> siècle et analyse l'influence du périodique illustré *Le Tour du monde*(1860-1914), sur la formation de l'image de l'Indo-Chine. La deuxième partie fournit des exemples précis de la façon dont *Le Tour du monde* a joué un rôle significatif dans la formation d'un imaginaire indochinois à partir de deux récits publiés par ce périodique: une relation d'Henri Mouhot(1863) et celle de Francis Garnier(1870). En conclusion, l'Indo-Chine a été un objet à explorer et à conquérir pour les Français au XIX<sup>e</sup> siècle, alors qu'ils tentaient de définir la région. Cet espace a été un monde facile à spécifier par le texte et les images imprimés sur les pages du *Tour du monde*. Plus important encore, Angkor Vat que le public français a «découvert» au XIX<sup>e</sup> siècle par ce périodique a joué un rôle clé pour induire le public français à fantasmer sur un imaginaire indo-chinois, qui résonne toujours pour les Français d'aujourd'hui.

## 〈Summary〉

**Indo-China and French Illustrated Travel Accou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Eun-Young KIM

This present work intends to explore certain aspects pertaining to the French perception of Indo-China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examining French travel accounts of Indo-China from the period. That is, I investigate how the popular image of Indo-China was formed in nineteenth-century France. The paper is organized into two parts as follows. The first part traces the formation of travel accounts as a writing genre in modern France, reviews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ravel accounts of Indo-China, examines the vulgarization of travel accounts in nineteenth-century France,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illustrated periodical *Le Tour du monde*(1860-1914), which means Around the World, on Indo-China image formation. The second part provides some specific examples of how *Le Tour du mond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an imaginary Indo-China by analyzing two illustrated accounts published by *Le Tour du monde*: Henri Mouhot's(1863) and Francis Garnier's(1870). In conclusion, Indo-China was an object to explore and conquer for the French in the nineteenth century as they attempted to define the region. That space was a world easily specified by the text and images printed on the pages of *Le Tour du monde*. Most importantly, the Angkor Wat that the French public 'discovered' in the nineteenth century through *Le Tour du monde* played a key role in inducing the French public to fantasize an imaginary Indo-China, which still resonates with the French to this day.